



영유아에게 흔한 감염병

수족구병 알아보기



수족구병이란?

- 장바이러스(엔테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생기며, 발열 및 입안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이 특징인 질환
- 주로 5세 이하의 영유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여름에서 가을까지 유행

수족구병 증상

- 3~7일 잠복기 후 2~3일 동안 발열, 식욕부진,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입 안, 손과 발에 수포성 발진이 주된 증상
- 7~10일 내 자연적으로 회복되며, 드물게 합병증으로 뇌막염, 뇌염, 폐출혈 등 발생 가능

감염경로

- 환자의 분비물(침, 가래, 콧물, 대변)과 수포의 진물 접촉 또는 비말(침방울)에 의해 감염
- 환자의 분비물에 오염된 물(수영장 등) 혹은 물건을 통한 감염도 가능
- ⚠️ 증상 완화 후에도 대변 등으로 전파 가능하므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필요

치료방법

- 예방주사나 특별한 치료제는 없으나, 증상 완화를 위해 대증요법*을 사용
- * 발열 통증 완화: 해열진통제 | 탈수: 정맥 수액치료



우리아이가 수족구병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다른아이들에게 전파방지를 위해 이렇게 해주세요 ⚠️



가정

- 입안 수포, 손과 발의 물집이 다 나을때까지 등원(교) 및 다중이용시설(학원, 키즈카페 등) 이용 자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 장난감, 놀이기구, 문 손잡이 등 자주 만지는 표면과 공용물품 등의 소독 관리 철저
- 식사 전·후, 화장실 사용 후 손씻기 등 개인 예방수칙 교육 철저

수족구병 예방수칙



올바른 손 씻기

-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등



올바른 기침예절

-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기침한 후 반드시 손 씻기



철저한 환경관리

- ✓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문 손잡이 등 자주 만지는 표면, 공용물품 등을 청결(소독)하게 관리
- ✓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을 철저히 세탁하기

수족구병 예방·관리를 위한 소독 안내

소독을 왜 해야 하나요?

- ✓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엔테로바이러스 등은 장난감, 문고리 같은 물건 표면을 통해 아이들에게 쉽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 알코올 손소독제는 효과가 없습니다!

엔테로바이러스는 알코올에 저항성이 강해 일반 알코올 손소독제나 소독용 에탄올으로는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멸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염소계 소독제(락스 희석액)를 사용

어디를 소독해야 하나요?

- ✓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키즈카페 등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아이들의 손과 입이 자주 닿는 모든 생활 접촉 면을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아이들 손이 자주 닿는 물건



장난감, 교구, 책상, 문고리, 리모컨, 스위치, 수전(수도꼭지)

분비물 오염 위험 구역



기저귀 교환대, 수유실, 화장실 변기 및 물조절 레버

공동 생활 공간



거실 바닥, 놀이 매트, 식탁, 영유아용 의자

어떻게 소독해야 하나요?

STEP 1. 올바른 소독제 준비하기(가정용 락스 희석)

- ✓ 준비물: 가정용 시판 락스, 찬물, 일회용 장갑, 마스크, 천(또는 타월)
- ✓ 희석 비율 (5,000ppm, 1L 기준): 물 875ml + 가정용 락스 125ml

*주의: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찬물을 사용해 주세요.



STEP 2. 안전하고 정확하게 닦아내기

- ✓ 환기하기: 창문을 열고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 닦아내기: 희석한 락스액을 천에 적셔 한쪽 방향으로 닦아냅니다. (분무기로 뿌리면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거나 흡입 위험이 있으므로 '닦아내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 ✓ 방치 및 행균: 소독액이 반응하도록 10분간 둔 뒤, 깨끗한 물을 적신 젖은 닦음 천으로 다시 한번 깔끔히 닦아내고 바짝 말려줍니다.

